

† 마데테스는 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귀찮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갑과 을

신윤식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아래에서
그 분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어느 누가 감히
갑이라 행세하려 하는가

내 손에 있다하여
내 것이라 여기니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임을 알지 못하는
정신 나간 작자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라.

갑과 을을 따지고
공평과 평등을 말하기 전에
인간의 근본부터 가릴 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6.9

발행호수 제21권 23호

하 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이 분명하며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일오전설교
눅 12:13-21

생명과 소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으며 우리가 보는 성경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말씀 앞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종속된 자가 되어 말씀이 이끄는 길로 순종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받는 당사자의 가치관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가치관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치관에 일치되어 있지 않다면 제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말씀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 되거나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역시 나를 향한 탐욕에서 초월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을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해

도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탐욕이 이루어지는 삶이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탐욕이 말씀과 부딪히면서 나에게도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의 탐욕에 대해 판단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욕심이 없는 편이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을 거짓과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서까지 재물을 쌓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말씀과 탐욕의 부딪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일을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부탁은 자신의 형에게 말씀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모두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은 법원에 송사를 해서 판사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되지만 당시에는 랍비에게 송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로 칭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에서 볼 때 형과 동생 중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준과 시각에 의한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형이 나쁩니다. 동생보다 형이 더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형이 독차지한 재산을 동생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독차지한 유산을 나눠 받기를 원하는 동생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난 받을 요구가 전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4절)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5절)고 하십니다. 동생의 요구를 탐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는 '그럼 이런 경우 동생은 유산을 아무 말 없이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딪힘입니다. 여러분도 동생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생

각하고 있고 여러분이라고 해도 동생과 같은 요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부자는 공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19절)고 말했다고 합니다. 큰 공간에 몇 년 동안 풍족하게 쓸 물건과 곡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상상하면서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고 평안이 쉬면서 인생을 즐길 수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곡식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둔 것이고,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의 이 같은 생각을 어리석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 늘밤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인생을 즐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그러면 인생을 편안히 살면 안 되고 노후대책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반발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불편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생의 요구는 자기 몫을 찾고자 하는 정당한 행동이며 제 삼자인 누구라고 해도 형을 비난하고 동생 편을 들 것입니다. 세상 법정 또한 형을 옳지 못하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부자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거둔 소출로 자기 인생을 편하게 즐기겠다는데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에서 본다면 부자이랄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두 사람의 생각을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함으로 다가

온다면 우리 또한 이들 두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설령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나는 다르다’고 선불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타성에 젖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단순히 세상 물정에 치우치지 말고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종교적 교양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말씀을 듣는다면 부딪침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탐욕을 초월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의 결과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4절)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자기 몫의 유산을 찾고자 하는 것이 문제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문제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관심은 생명의 문제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생각하며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해줄 랍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도 소유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것만 생각할 뿐 죽음과 함께 눈에 보인 모든 소유는 사라지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소유를 바라보며 인생의 행복을 꿈꾸는 마음으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관심이 이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을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생각은 ‘그래도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소유가 있어야 행복하고 소유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부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부요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일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어 놓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죽음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며 오늘 당장 주어질 수도 있는 현실임을 자각한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소유로 넉넉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 소유 문제를 해결 받고자 하는 것은 유산을 위해 예수 찾은 사람과 다르지 않고 넉넉한 소유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 2: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고 말합니다. 넘치는 부요로 부자가 꿈꾸는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잡고자 해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을 손으로 쥐어 잡

았다고 하나 어느새 새어나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생임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생이 죽음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죽는 자에게는 내 것이라는 말 자체가 헛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소유지향적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늘 갑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재를 아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갑을 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헛된 놀이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갑이든 을이든 죽음에 이르게 되면 무의미한 것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생명의 문제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곧 생명의 나라임을 알게 되면 소유로 인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인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넉넉하게 하는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이 밑줄을 치고 싶다면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아마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6,7절)는 구절에 마음이 끌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와 내 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일오우설교

시 118:1-9

여호와와 내 편

(122장 5.19일 설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인생은 형통해지고 복을 누리며 안락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같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방식으로 내 편이 되어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이며 큰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며 일하신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입장과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두 사람의 평소 신앙생활을 따져서 기도를 더 많이 했거나 십일조를 잘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이것이 신에 대한 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겨우 욕망으로 넘치는 나의 기대에 부응해주는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는 내 편이라’ 고 말할 때 주지해야 하는 것은 ‘나’ 라는 존재입니다. 즉 시편 저자가 말하는 ‘내 편’ 이라는 말에 선불리 나 자신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을 달리 풀이하면 ‘여호와와는 나 같은 사람의 편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여호와와는 내 편이라’ 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에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고 노래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는 찬송은 4절까지 반복되고 있고 마지막 구절인 29절을 보면 1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보면 118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찬송시라고 할 수 있고, 118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와는 내 편이라고 말하려면 무엇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가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

하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5-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저자는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저자는 고통 중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자가 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삶을 배경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며 편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자는 세상의 현실이 부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믿는 사람조차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자신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삶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어떤 고통과 비참한 사건에서 훼손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지진이나 해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는 재앙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훼손되지 않은 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존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자하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느낌만 강하게 들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자신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믿게 된 신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비로소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내 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편이고 너의 편은 아니다' 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이 잘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너는 모든 일이 안되니까 너의 편이 아니다' 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고통 중에서 여호와와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4절)고 노래합니다. 저자는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함께 하는 것으로 여호와가 내 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구원의 문제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고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진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2,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면 쓸모없는 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이 되어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뜻이 이뤄지도록 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성취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 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임합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약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비록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히는 곤경에 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유다나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하시는가?' 라는 조롱을 뱉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초를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도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욕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와서 '내 밭을 사라' 고 요구하면 그 밭을 사라고 지시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밭을 팔고 사는 일은 일상생활에 포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갇혀 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무너진다면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유다의 땅 역시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 당연한데 밭을 산들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

수요일설교
렘 32:1-15

내 밭을
사라

(80장 5.15일 설교)

나라” 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25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처한 현실과 접목시키려고 하게 되면 예레미야처럼 의구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가령 행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임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납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의구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은 삶입니다. 이 두 현실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신앙의 현실을 통해서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만 보게 되면 단지 수고하며 일하고 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하나님을 끌어 들여서 좀 더 좋고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허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현실에서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허무는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죽음도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고 유다 또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는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단지 주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망한다고 해서 그것

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밭을 사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삶의 현실만 잘 풀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신앙의 현실에서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는 모든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대 교회는 신앙이 아닌 다른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삶의 현실에만 매인 채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말로 신앙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현실에 접목하여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뜻을 두고 일하십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암담하게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이 삶의 현실의 전부가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삶의 현실만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웃고 나쁜 일이 있으면 울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현실에서 삶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으로 인해 나 같은 자가 생명에 있게 됨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의 현실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의 현실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증거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로 부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64장

교 독 : 80(고후4장)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540장

성 경 : 눅 12:13-21

말 씀 : 생명과 소유(6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1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83장

기 도 : 이인혁 집사

찬 송 : 432장

성 경 : 시 121:1-8

말 씀 : 도우시는 여호와(125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83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84강)

■ 교회소식 ■

1. 신윤식牧사는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집회 인도를 위해 출국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한옥섭 권사

이단 ③

우리가 흔히 안상홍 증인회라고 부르는 이단 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다. 안상홍은 1947년에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안식교)에 입교하였다가 1962년 교단으로부터 탈퇴하여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하였고 1985년에 사망했다. 그 후 하나님의 교회는 총회장인 김주철과 하늘 어머니로 불리는 장길자가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장길자가 교주이며 안상홍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스스로를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기다리며 안상홍을 증거하기위해 모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이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2천 년 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시대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안상홍이라는 것 때문이다. 즉 안상홍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따라 이 땅에 두 번째 임할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고 증거하고 전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내세우는 근거는 역시 성경 구절이다. 요 5: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가 안상홍이라는 것이다. 즉 성경이 안상홍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아적이고 유치한 끼워 맞추기 식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안상홍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을 재림 예수로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안상홍만이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라는 증거 역시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그 역시 자기들 멋대로 끼워 맞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으로 이해되어야 할 모든 구절을 안상홍에 꺾 맞춰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하나로 새언약 유월절을 말한다. 새언약 유월절은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로 세우신 영생의 언약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의해 하나님의 때와 법이 변경될 것이라는 예언대로(단 7:25)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월절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폐지된 유월절을 다시 가지고 온 사람이 안상홍이며 그래서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담아주신 날로 믿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기존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구원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니케아 회의에서 유월절을 폐지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일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약의 유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절기(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회복하여 다시 세운 사람이 안상홍이기 때문에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